

좌
담
회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과 효과적 시행 방안



◇ ...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수없이 변경되었다. '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바뀌어 '97학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 방법, 전형 자료, 전형 시기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자율화의 정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대입제도에서는 종전의 내신제도 대신에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바, 내용면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효과적인 시행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 참석자
박병호/경북고 교장
박무권/동국대 교수
이정진/참교육시민모임 사무처장
허경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황경식/숭실고 교사
- 사회
이종승/충남대 교수
- 정리
정유석/본지 편집실 연구원
- 일시 : 1996. 3. 16(토)
- 장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실

이종승 : 종래의 생활기록부는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계량화하고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학생들간에 지나친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교내신 15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이하 종생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종생부 도입의 기본 취지와 배경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지요.

허경철 : 종생부 정책 입안 연구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종래의 생활기록부와 새로 도입되는 종생부가 서식과 내용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종래에 15등급의 석차 점수를 산출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교교육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내신 석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즉, 학생들간의 이기적 경쟁심 조장, 적성과 진로와는 무관하게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만 한다는 전체주의적 성향, 사소하게는 학부모의 치맛바람 유발 등 교육효과 면에서 많은 역기능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 도입된 종생부는 전체 석차에 근거한 등급화된 종래의 내신제를 폐지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입시를 위한 대학 제출용으로 사용되던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 교육 자체를 위한 것으로 쓰임으로써 고교교육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

니다.

박부천 : 앞서 허경철 선생님께서 종생부를 도입함에 따라 석차에 근거한 내신제가 폐지된 것을 근본적 변화라고 보셨는데, 저는 종생부가 인간을 단편적으로 보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학생 평가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종생부의 도입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면 서도 현실 여건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는 그것의 목표 실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정진 : 학부모의 입장에서 종생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과거에 학업 성적과 등수를 가지고 평가하던 것을 봉사 활동 등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는 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위와 실천, 이상과 현실 조건의 차이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고교 현장의 여건과 대학의 종생부 적용 방법에서 벌써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등 많은 대학이 종생부의 교과 성적을 과목별 석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전체 석차로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종래의 내신 등급제가 고스란히 남게 되고, 종생부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우려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책 입안시 현실을 무시한 당위만 앞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박병호 :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생부의 취지는 전인적 성장과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선 현장교육



이 종 승

“고교교육이 대학교육과 입시에 예측화된 고리를 끊고, 대학입시 자료로서만이 아닌 고교 생활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입 취지를 살린다면 종생부의 기록 내용이 큰 의미를 갖게 아닐까요?”



박 병 호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생부의 취지는 전인적 성장과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에서 잘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본래의 의도대로라면 학생의 지적 능력과 인성 발달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선 교사에게 엄청난 작업량과 심리적 부담을 주고,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조리 등이 염려됩니다.

황경식 : 저도 현장 교사로서 종생부를 이 상대로만 살리면,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큼니다. 다만 종생부를 기록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학생에 대한 서술식 평어가 가능한지 의문이 큼니다. 예를 들면 윤리 과목 선생님이 10개 학급의 수업을 담당할 때 한 반 50명, 모두 500명의 학생에 대해 평어 기록이 단시간에 가능한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주관적 평가보다는 과목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어의 유형을 만들어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병호 : 황 선생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 기술 과목 같은 경우에 한 선생님이 1주 1시간씩 18반을 들어갈 때, 더군다나 다인수 학급의 상황에서 서술식 평어로 학생을 평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교사 개인차에 따라 평어가 다르므로 객관화하자는 안은 결국 ‘규격화’된 표현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정진 : 종생부를 종래의 내신제와 비교해보면 기술하는 방식만 달라졌지, 종생부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생부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데, 공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이 심하게는 천명 정도를 가르칠 때, 학생의 이름도 모르는 실정에서 학생의 특성 등을 종생부에 기록한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입시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촉각이 곤두서는 것입니다.

허경철 : 이정진 선생님이 앞서 지적하신 서울대의 총점에 의한 석차 반영 문제는 새로운 종생부가 '97학년도부터 도입되므로 현재의 고3 학생의 경우, 고 1, 2학년 것은 과거식 평가로 이미 종결되고 올해의 3학년 과정 1년치만 새 서식으로 평가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고려중인 것으로 봅니다. 2년 후부터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생부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 대학에서 종생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 학생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에서 학부, 계열, 학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새롭게 도입된 종생부가 지금은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종생부의 취지와 의의가 살아날 수 있게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고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술식 평어 기록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에 대한 평어를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저하게 특성이 나타나는 학생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우·미 등의 평어는 교과별로 종래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징적인 학생만 서술식 평어를 기록하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종승 : 사회성, 협동성, 준법성 등 종전의 행동발달 상황은 반영이 됩니까?

허경철 : 종전에 가·나·다 중 하나를 골라서 동그라미표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특별히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는 학생, 두드러진 학생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 저는 그러한 서술식 평어와 기록이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구색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과목 평어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행동발달에 대한 평가의 반영비율은 거의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허경철 : 반영은 개별 대학에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업무 부담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것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눈에 띄는 학생에 대해서 서술식 평어를 기록하면 되므로 업무량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호 : 저는 다인수 학급 상황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발견하여 서술식 평어를 기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고교 현장에서는 기록해야 할 장부가 너무 많습니다. 생활기록부 이외에도 보조장부로서 대일람표, 생활·성적 일람표, 성적전표,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상황표, 학교생활·행동관찰·봉사활동·서클활동 관련 각종 누가기록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내용만으로도 교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노력에 비해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대학에서의 활용도와 효용성 면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종승 : 생각을 달리해서 고교교육이 대학교육과 입시에 예속화된 고리를 끊고, 대학입시 자료로서만이 아닌 고교 생활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입 취지를 살린다면 종생부의 기록 내용이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닐까요?

박병호 : 그렇게만 된다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고교교육과 대학교

육이 각자의 기능과 특수성에 기초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황경식 : 대학은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고교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의 보조 장부 기록도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박부권 :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기록 사항에 대한 방대한 입증자료까지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대학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대학에서는 종생부에 나타난 봉사활동, 행동발달 상황, 교과 성적 등에 대한 세세한 기록사항들을 반영할 방법도 없고 봉사활동이나 행동발달 상황의 경우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준거에 의하여 이들 기록내용들을 점수화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교과 성적은 학년별·학기별·과목별 성적이 거의 180칼럼에 걸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작업량입니다. 혹자는 전산 처리가 뭐 그리 어렵느냐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종생부의 입시 반영과 관련하여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종생부가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교사가 바로 서야 하고 교장의 자율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자율성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단계가 되어야만 종생부의 도입 의미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고교에서는 업무량은 많고 효용 가치가 거의 없는 무용한 일을 하는 것과 다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종승 : 저는 종생부가 도입됨으로써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성적에만 매달리

지 않고 사회봉사 활동 등에 마음을 쓸 수 있게 유도하는 측면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박병호 : 자칫 상장을 양산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봐요. 교사는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웬만하면 우수하다고 처리할 가능성이 큼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회봉사 활동 등이 경쟁 자료로 쓰이는 한, 부조리 예방은 어려워리라 봅니다.

허경철 : 사회봉사 활동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속적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그러한 활동 상황은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버드 대학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입시에서의 반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 원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봉사 활동의 근본 정신인데, 그것을 성적으로 반영한다니까 봉사의 진의가 무색해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승 :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입시와 무관하게 봉사 활동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과거의 입시에서 논술고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변별력이나 반영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원고지 쓰는 법을 몰랐던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면서 사용법을 알아가듯이, 논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얻는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도 같은 맥락으로 기대하면 어떨까요?

박부권 : 동국대는 봉사 활동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학생에 따라 마음 자세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마음이 중요하고 습관 형성이 되어야지 입시를 위하여 일시



황 경 식

“대학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교과 성적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종생부를 다양하게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계속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박 부 권

“종생부가 서둘러서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철저히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학, 고교, 정부가 협조해야 종생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시용 봉사는 문제가 됩니다. 사회와 성인이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봉사 활동을 점수화하는 것은 봉사정신을 확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동발달 상황의 적용 경우도, 예컨대 시카고 대학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주기, 학문적 가능성 등을 종합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화되어 있고 평가척도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평가척도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황경식 : 저희 학교의 금년도 신입생은 학기초 신입생 수련회에 예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학할 대학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혹시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은 입시에 반영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사회봉사 활동과 학교 생활에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제적 습관일지라도 훌륭한 심성을 형성할 수 있을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진 : 물론 제도가 의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본

적으로 봉사 활동 등을 점수화한다는 것은 교육효과 면에서 역기능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종생부를 총점에 의한 전체 석차로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은 근본적으로는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종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의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종생부 반영비율 결정도 대학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입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대학에 맡겨 두어야 종생부의 본래 취지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승 : 종생부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 혹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 교사 대 학생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해결안이라고 봅니다.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당장에는 종생부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교과 성적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종생부를 다양하게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국대와 중앙대 등 몇몇 대학에서 진로와 적성에 맞게 전공 2개, 선택 4개 등 6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입시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궁극적으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계속 확산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부천 : 저는 종생부가 서둘러서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철저히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학, 고교, 정부가 협조해야 종생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문제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종생부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에서는 종생부 반영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생부에 기록된 전체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만 명이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산 처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피상적으로만 고민하는 대학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게 하되, 특정 과목만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4과목을 선택하게 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교사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영국의 교육개혁은 교사개혁에 초점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은

교사개혁에 20년이 걸렸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5천 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장·교사의 순환제, 교육과정의 경직성, 자율권 없는 학교장 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동중입니다만, 여기서도 사실상 교사개혁 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사 개인의 양심과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하더라도, 단 몇 명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으로 종생부를 기록한 교사가 있다고 하면 대학은 바로 이들 때문에 종생부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조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생부의 반영비를 문제보다 교사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정진 : 영국의 교사개혁과 우리의 교사개혁 문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교사당 학생수의 과밀, 사회적 대우나 현실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호 : 늘 지적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당 수업시수 감축, 담임 수당 등의 현실화, 평소 기록 관리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황경식 : 종생부를 담임 교사가 자필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하게 하고 교육청에도 그 자료를 두면서 학교와 이중으로 보관하고 대학에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량도 감소하고 공정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허 경 철

“새로 도입된 종생부는 전체 석차에 근거한 등급화된 종래의 내신제를 폐지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대학 제출용으로 사용되던 생활기록부가 고교교육 자체를 위한 것으로 쓰임으로써 고교교육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 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종생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종생부의 교과 성적을 과목별 석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전체 석차로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종생부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우려됩니다.”

요?

허경철 : 저는 교사들 중에는 어떤 개혁의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도 자신들에게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개혁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생부 도입으로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와 현재의 노고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종생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취지나 기록법 등에 관한 연수도 필요합니다.

이종승 : 대학입학 전형자료로서의 종생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 주시지요. 종생부 활용과 관련하여 동국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박부권 : 모든 과목을 다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므로,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 과목을 선택케 하되, 문과는 우리 대학의 이념과 연관시켜 윤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놓았고 이과는 관련 과목 하나를 각 계열에서 필수로 지정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선택하게 하되 아주 쉬운 것만 고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종승 : 가령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한 학

생이 인문계 출신이 아닐 수도 있고 외국어 고, 상고 등등 다양할 수 있는데 선택 과목을 4개로 한정된 것은 출신 고교와 상관없습니까?

박부권 : 그것은 상응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승 :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경철 : 각 대학에서 입시자료로서 필요한 과목을 2,3년 전에 예고하면, 형평성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정진 :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 격차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박부권 : 그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고교별로 재학생들의 학업 성적 과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교간 학력 격차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입니다. 강남의 8학군, 시골 학교 등의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교간 학력차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허경철 : 종생부의 수·우·미 등의 평어는 학교간 격차가 고려되지 않은 의미인데, 학력차의 문제는 지원 학생의 수능 성적, 학

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박부천 : 저희 대학은 1차적으로는 수능 성적으로 걸러내고, 다음에 종생부의 행동 발달 상황과 특기 사항 등 비지적 사항을 참조하여 특정 활동에서 전국 규모의 수상자 등 두드러진 학생들은 미리 선발한 후, 종생부의 기록을 보면서 면접을 치르는 다단계 전형의 할 예정입니다.

이종승 : 충남대도 1차적으로 수능 성적만으로 2배를 선발한 후, 종생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황경식 : 대학이 종생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이 종생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고교교육으로 전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종생부에서도 총점에 의한 전체 석차를 산출하는 것과 같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판이하고 현장의 교육을 깊이 배려하지 않으면, 고교의 업무량은 터무니없이, 별 효용성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허경철 : 대학은 과거 관행상 종생부와 관련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듯해요. 저는 대학에 입시관리처가 상설적으로 운영되면서 종생부 등 입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생부에 대한 단일한 태도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협 같은 기관에서 종생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잘 운영하는 대학에 주면서 유인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승 : '97학년도 대학입시의 종생부 반영비율은 국·공립대학은 40%,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반영비율 등을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허경철 : '97학년도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영하지만,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생부 반영과 관련하여 동국대와 중앙대 등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봐요.

이것은 대학과 고교에 동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이 지향하는 학과, 계열, 학부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의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고교 현장에서도 과거처럼 전 학과 공부에 시달리면서 의미없이 시간을 허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만 중점 대비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종생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특별활동, 행동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생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비지적·정의적 측면의 정보를 가급적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정진 : 반영비율의 강제 규정은 당연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생부 중 교과 성적 부분은 수능시험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고, 봉사 및 특별활동 실적 등을 대학입시에서 더욱 많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생부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면서 입시에 반영되는 묘안을 짜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호 : 저의 일관된 생각은 입시 문제는 모든 것을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특히 초·중등교육이 사회로부터 받는 불신이 매우 클수록 대입 관련 문제는 대학의 자율적인 전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황경식 : 저는 대학에서 다단계 전형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단계는 수능 성적으로, 2단계는 가능한 한 종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되, 특히 대학이 예고하고 학생들이 선택한 소수 과목의 반영비율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교에서는 원하는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 학생도 신이 나고, 교사도 신이 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진학도 규격화된 서열화에서 탈피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것입니다.

박부권 : 종생부는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대학입시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비율을 국가가 정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승 : 지금까지 '97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진한 점도 많고, 의견이 한결같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좌담을 마무리하면서 종생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는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꼭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진 : 종생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종생부와 관련하여 너무 큰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교육개혁이 돈 안 들이고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황경식 : 종생부가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어떻게 종생부를 활용해 주시는가입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진지하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지요. 덧붙일 것은 언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몇 명 넣었나를 주요 의제로 삼고, 신흥 명문고 운운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고교교육을 망치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교육 정상화에 큰 해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교육 단체 등에서 자제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허경철 : 앞으로 교사의 업무량을 덜어주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종생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부권 : 고교의 업무량은 모든 대학의 지원양식 표준화 등 전산화를 통해 경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교와 대학을 연결해 주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임시전담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교협 진학센터 등이 확대 운영된다면, 제격이 아닐까요?

박병호 : 학문의 전당인 대학과 보통교육 기관인 고등학교와의 접목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종승 :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97학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대학입학제도와 종생부가 그야말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입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좌담회를 마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